

# “국제무대 通했다”... ‘슈퍼 스타’ 김도영의 재발견



‘예선 탈락 고배’ 한국야구, 그래도 희망을 봤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고, 대만에서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24 일정을 마감했다.

프리미어12 3회 연속 4강 진출의 꿈은 물거품이 됐지만, 대만에서 얻은 소득도 있다.

2024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최고 타자 김도영(21·KIA)은 프리미어12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타자’로 부상했다.

박성현(26·SSG)이 공수에서 맹활약하면서 한국 대표팀은 유격수 고민을 완전히 해결했다.

박영현(21·kt)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오승환(42·삼성)처럼 무시무시한 직구를 던지며 ‘국제 무대에서도 통하는 투수’로 인정받았다. 김서현(20·한화)의 국제 경쟁력도 확인했다.

대회 시작 전부터, WBSC, MLB닷컴, 대만 언론은 입을 모아 김도영을 ‘프리미어12를 빛낸 스타’로 꼽았다.

김도영은 올해 KBO리그 정규시즌에서 타율 0.347, 38홈런, 40도루, 109타점, 143득점으로 활약했다. KBO리그 역대 최연소 30홈런-30도루 기록을 작성했고, 득점과 장타율(0.647)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프리미어12에서도 국가대표 불박이 3번 타자 김도영은 공을 멀리 보내고 그라운드를 빠르게 달렸다.

14일 쿠바와 경기에서는 올해 일본프로야구 퍼시픽리그 평균자책점 1위(1.88)를 차지한 리안 모이넬로를 두들겨 만루 홈런을 작렬했다.

18일 호주와의 B조 마지막 경기에서도 결승타와 쉐기 투런포를 날렸다.

김도영은 이번 대회에서 17타수 7안타(타율 0.412), 3홈런, 10타점, 1도루를 올렸다.

안타 7개 중 장타가 5개(홈런 3개, 2루타 2개)였다. OPS(출루율+장타율)는 1.503으로 한국 대표팀 중 가장 높다.

올해 KBO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책 30개를 범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수비에서 안정을 찾았던 김도영은 프리미어12에서는 뛰어난 순발력으로 강한 타구를 여러 차례 잡아내며 약점마저 지워냈다.

김도영이 이제 고작 21세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야구는 앞으로 최소 10년은 3번 타자 걱정 없이 대표팀 타선을 꾸릴 수 있게 됐다. 한국 야구는 젊은 유격수 박성현의 성장도 반겼다.

박성현은 대만전에는 결장했지만, 쿠바(4



김도영



박성현



박영현



김서현

/연합뉴스

## 김도영, 홈런 3방·10타점 ‘세계가 주목’... 유격수 박성현은 공수 맹활약 ‘포스트 오승환’ 박영현, 마무리 합격점... 김서현도 155km 광속구 ‘평평’

타수 2안타), 일본(4타수 2안타)을 상대로 멀티 히트를 쳤고, 도미니카공화국(3타수 1안타)과의 경기에서도 역전 결승 3루타를 작렬했다.

이번 대회 박성현의 성적은 14타수 5안타(타율 0.357), 2타점, 4득점, OPS 0.938이다.

프리미어12에서 박성현은 공수 모두 만점

에 가까운 활약을 했다.

투수 중에서는 박영현이 가장 돋보였다.

박영현은 14일 쿠바전에서 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 2탈삼진으로 막았고, 16일 도미니카공화국전에서는 1%이닝 2피안타 무실점 1탈삼진으로 구원승을 올렸다.

호주전에서는 5-2로 앞선 9회에 등판해 3

타자를 모조리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목직한 직구가 2천 500rpm(분당 회전수)의 회전력까지 갖추자 힘 있는 타자들의 배트도 밀렸다.

한국 야구팬들 사이에서 ‘박영현 투입 시기가 논쟁거리가 될 만큼 이번 프리미어12를 통해 박영현은 ‘대표팀 마무리 또는 핵심

불펜’ 자리를 확실하게 꿰찼다.

김서현의 호투도 반가웠다.

2023년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서현은 기복 탓에 아직 유망주 꼬리표를 떼지 못했지만, 이번 프리미어12에서 시속 155km를 넘나드는 빠른 공을 던져 4경기 4이닝 3피안타 무실점 4탈삼진으로 잘 던졌다.

국제대회에서 ‘구위형 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대표팀 소집 훈련 때만 해도 최종 승선을 확신하지 못했던 김서현은 구위로 자체 경쟁을 뚫고 국제대회에서 재능을 맘껏 뽐냈다.

/연합뉴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해 순항 중인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쿠웨이트 전 출전 선수들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쿠웨이트 자베르 알 아흐메드 국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팀 훈련에서 운동장을 걸으며 컨디션을 끌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 “방심은 금물... 강한 마음으로 나설 것”

한국 축구, 오늘 밤 11시 월드컵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

“매 경기 결승전 각오... 쉽게 이긴다는 생각 버렸다” “대표팀 연령 낮아진 것은 앞으로 10년 대비한 준비”

“강한 마음으로 팔레스타인전을 치르겠습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약체로 평가되는 팔레스타인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6차전에서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 감독은 18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선수들의 준비 상태는 강할 것이다. 1차전에서 어려운 경기를 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 주의하며 마지막 훈련을 잘 치르겠다”고 밝혔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9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의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6차전을 펼친다.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에서 팔레스타인과 뜻밖의 0-0 무승부를 거뒀던 대표팀은 이번에는 대승을 거둬 A매치 5연승의 신바람과 함께 올해 A매치 일정을 기본 좋게 마무리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다음은 홍명보 감독과의 일문일답.

▲ 팔레스타인전 준비 상황은.

-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잘 준비했다. 원정 경기지만 지난 10월에 경기했던 곳인 만큼 선수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다만 이번 팔레스타인전은 올해 마

지막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경기다. 쉽게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강한 마음으로 내일 경기를 잘 치르도록 하겠다.

▲ 요르단에는 팔레스타인 교민이 많고, 1차전 때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다. 팔레스타인 선수들의 준비 상태는 다른 어느 팀보다 강할 것이다. 1차전 때는 대표팀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나은 경기를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이 요르단에서 경기를 개최한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더 잘 준비하겠다.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다소 피로가 쌓인 것은 사실이다. 오늘 마지막 훈련을 잘해서 내일 좋은 결과를 내겠다.

▲ 선수단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점은.

- 감독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상관 없이 현실적으로 좋은 선수를 찾는 것이다. 나이 많은 선수가 낫다면 선택하는 것이고, 나이 어린 선수가 나으면 뽑아야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대표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표팀의 전반적인 연령이 낮아진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이다. 대표팀에 합류한 어린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용되고 있다. 나이가 우선시 되는 부분은 아니다.

2년 뒤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 대표팀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의 10년 뒤까지 대비해 선수를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팔레스타인은 월드컵 3차 예선 B조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패하지 않은 팀인데.

- 1차전과는 다른 경기를 펼치도록 준비했다. 우리는 매 경기를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3차 예선을 마칠 생각이다. /연합뉴스



임진희가 18일 열린 LPGA 투어 더 언니카 드리븐 최종 라운드 17번홀에서 티샷 후 타구를 지켜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 임진희, LPGA 신인왕 ‘한결음 더’

안니카 드리븐 준우승... 시즌 최종전서 66점차 역전 도전

임진희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수상의 희망을 살렸다.

임진희는 18일 열린 LPGA 투어 더 언니카 드리븐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69타를 적어낸 임진희는 찰리 힐(잉글랜드), 장웨이웨이(중국)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올해부터 LPGA 투어에서 뛰는 임진희는 지난 4월 JM 이글 LA 챔피언

십 공동 4위를 뛰어넘는 시즌 최고 순위를 찍었다.

특히 임진희는 신인왕 경쟁에서 1위 사이고 마오(일본)와 격차를 146점에 안나카 드리븐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69타를 적어낸 임진희는 찰리 힐(잉글랜드), 장웨이웨이(중국)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사이고는 컷 탈락해 신인왕 포인트를 1점도 보태지 못했다.

임진희는 이번이 여섯번째 톱10 입상이다. /연합뉴스

##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을 지휘했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허 전 감독은 18일 “일주일 전부터 깊게 고민했고, ‘좋다, 마지막으로 해보자’라고 결심했다”며 “이번 주 안에 정식으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인들의 이

야기를 대변하고, 축구인들이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보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4선에 도전할 걸로 예상되는 정몽규 회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허 전 감독이 축구협회장 도전의사를 밝힌 첫 번째 인사가 됐다.

/연합뉴스